

## 김문수 장관, 대설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철저 지시

'25.1.6. 호남,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1.7.~1.10.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전북지역은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7.~1.1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설·한파가 예보된 1.7.~1.10. 동안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실시간으로 사업장에 지역별 기상상황과 안전수칙을 누리소통망(SNS), 공문을 통해 알리고 점검한다.

지난 11.27.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설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눈이 내리기 전에 무너지기 쉬운 가시설물 등에 보강 조치를 철저히 하고, 무너짐·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무거운 눈은 지붕, 시설물 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설작업 시 무너짐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 배달종사자 등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따뜻한 옷·물·덮터를 제공해 줄 것”도 당부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산재예방감독정책관<br>화학사고예방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지윤 (044-202-8965)                       |
|       |                      | 담당자 | 사무관<br>전문위원 | 이재희 (044-202-8968)<br>김상범 (044-202-8972) |
| 담당 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관<br>직업건강증진팀 | 책임자 | 팀 장         | 신욱균 (044-202-8890)                       |
|       |                      | 담당자 | 사무관<br>주무관  | 박현건 (044-202-8891)<br>한진우 (044-202-8895) |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은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